

# 영어대화에서 시작을 잘 떼기 위한 방법론적문제

류 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학습에서는 회화가 기본입니다. 회화는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이며 회화 능력은 외국어소유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정에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를 진행하는데서 대화상대방의 감정, 심리 상태에 알맞게 시작을 잘 떼는것은 대화를 흥미진진하게 이끌고나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생활하는 과정에 항상 잘 아는 사람뿐만아니라 파악이 없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수 있으며 이때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자면 시작을 잘 떼야 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대화에서 시작을 잘 떼는 방법으로서 한담(small talk)에 의한 시작떼기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담하는것을 대단히 힘들어한다. 그들은 친구들을 비롯하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국제정세나 경제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면서 곧잘 말하지만 낯모를 사람과의 한담은 하기 힘들어한다. 즉 그들은 초면인 사람과는 어떻게 말을 붙일줄 몰라 불안해한다.

대화는 단어들의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많은 신호들을 내포하고있다.

한담은 이 호상작용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것으로서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호상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다.

한담을 진행하는데서는 시작을 잘 떼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시기에는 낯씨에 대한 말로 시작을 떼는것이 일반적이였지만 지금에 와서

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한담을 시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화제거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위환경과 정황에 대한 평가나 질문으로 한담을 시작할수 있다.

예: “This is a lovely house, don’t you think?”

“This food looks magnificent.”

“It’s getting quite crowded.”

“I don’t know many people here.”

이렇게 말한 다음 계속하여 자기 소개를 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또한 말하는 사람자신이나 상대방이 해당 장소에 도착한데 대한 해설이나 질문으로 시작을 떼수 있다.

예: “I thought I’d be late.”

“Did you find the place easily?”

“Have you come far from?”

“The traffic was terrible. I’ve never known it so bad. How was your journey?”

“Did you have to park miles away?”

또한 화제의 중심인물에 대한 해설이나 질문으로 시작을 떼수 있다.

예: “John’s 40<sup>th</sup> birthday – I can’t believe it. Have you known him long?”

“I’m a new client of Helen’s. Have you been dealing with her for long?”

“Do you know if Muriel is running many of these product launches?”

“How do you know Veronica and John?”

또한 최근의 소식들과 새로 나온 영화, 도서, TV프로들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시작할수 있다.

례: “Have you seen the latest Meryl Streep film? That person rather reminds me of her leading man.”

이러한 화제로 시작된 한담이 중단없이 원만히 진행되게 하자면 일련의 문제들에 류의하여야 한다.

우선 대화자들사이에 정보교환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개인적의견이나 자료들을 일부 로출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때이르게 너무 많이 로출시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북한감과 불쾌감을 줄수 있다.

대화가 충분히 진척되기 전에 호상간의 견해상충돌을 막자면 정견이나 신앙문제와 같은 논쟁거리를 피해야 한다.

대화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맞게 정보교환을 진행하여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고유한 대화방식을 가지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그냥 묻기를 좋아하며 또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향이나 견해를 묻는것 보다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을 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대화방식을 좋아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말하는 사람이 자기자신이나 자기의 견해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동적으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때 대답이 《Yes.》나 《No.》로 간단히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될수록 오래 발언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례: “How did you get here?”)

대화자들호상간에 자기 소개와 질문의 균형이 잘 맞을수록 한담이 흥미진진한 대화에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사람들사이의 교제과정에 흔히 있게 되

는 다음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 소개와 질문의 균형을 관찰해볼수 있다.

례: A: Phew! It's quite warm in here.  
(대화시작)

B: Yes, I wish I'd worn something lighter. (자기 소개)

Have you ever been here before?  
(질문)

A: Yes, I came last year, to the same event. (자기 소개)

Were you at that? (질문)

B: No I wasn't in the country at the time. I was living in France.

I didn't even know of the country.  
(자기 소개)

Have you been dealing with them for a long time? (질문)

A: About five years. Before that I ran my own business. (자기 소개)

What were you doing in France?  
(질문)

우의 짧은 언어교제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A와 B는 비록 처음에는 더위와 같은 일반적인 말로 시작을 떼였지만 점차적으로 순조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상대방의 또 다른 측면 즉 옷차림, 피부색, 나이, 억양 등을 잘 관찰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고 상대방에 대하여 항상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한담을 할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받을수는 있다. 상대방의 억양이나 말투로부터 그의 출신지역을 예상할수 있으며 만일 말하는 사람도 같은 지역출신이라면 《What a small world it is!》(세상이 넓고도 좁다구야!)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것이다.

또한 한담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상적으로 신문을 읽고 체육경기, 음악회 등을 자주 관람하며 주위에

---

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국내외의 정세, 최근의 체육정보, 음악상식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담과정에 상대방의 이야기의 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례: Come and stay again soon...

What a lovely surprise!

Just what I've always wanted...

Why don't you call me?

우의 실례와 같은 감탄이나 초청은 실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본심이 아닐수도 있다. 그는 단지 대화를 끝내거나 대화과정에 발생한 미묘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당한 표현을 골라썼을뿐이다.

한담과정에 언급되는 말들을 문자그대

로 받아들이다면 리해상착오를 가져올수 있다.

실례로 당신이 손님으로 찾아간 집의 주인이 《You may stay here as long as you like.》라고 당신에게 말했다면 마음을 폭놓고 놀다가 가라는 의미이지 오래동안 집에 남아있으라는 의미는 아닌것이다.

이상에서 서로 초면인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서의 한담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적문제를 분석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사이의 대화에 작용하는 언어학적요인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론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원만히 해결해나감으로써 학생들의 언어교제능력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